



은덕 대종사,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 의장 도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0여명이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 동안거 제100회 입재식에서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안거기간 수행정진으로 마음자리 찾을 것을 당부하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 “관세음보살” 정근에 겨울밤은 깊어가고...

**천태종 제 100회 동안거 결제 현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새벽 자라에 지리한 단양 구인사, 늦은 밤중에도 층층이 자리한 법당 마다 관음정진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천태불자들이 지난 12월 7일 일제히 경인년 동안거 한달 수도에 돌입한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유일하게 출·재가의 안거가 제도화돼 있는 천태종. 추운 겨울에도 각 법당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신도들이 염불수행에 정진하고 있었다.  
 결제 이후 천태불자들은 한 달간 꼬박 관음정진과 울력으로 하루를 보내며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한다. 그동안 안거는 스님들의 전통적인 수행문화였다. 이는 어떤 특권직이나 권위적인 계층의 문제를 떠나 안거 자체가 장시간의 집중을 요구하다 보니

일반불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100회를 맞은 이번 동안거에는 단양 구인사에서만 1000여 명의 재가신자들이 방부를 들었다.  
 결제 첫 날, 각 법당에는 한 달 간 사용할 옷가지 등으로 인해 비좁았다. 이들은 채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몸을 누인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안거 기간만큼은 모든 불자들이 승속(僧俗)을 떠나 하나가 됐다. 이들은 모든 지위와 명예의 걸모습을 벗어던지고 삼매에 빠져들었다.  
 천태종 재가신도 안거는 하루 중 수면, 공양, 휴식 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염불수행이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150여 천태종 사찰에서 안거에 동참한 불자들은 1만여 명에 달한다. 구인사 안거에 동참하지 못한 신도들은 같은 기간 각 지역의 천태종 사찰에서 매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 30분까지 관음정진을 한다.  
 그 첫날인 12월 7일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회 경인년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결제 법회에서 종정 도용 스님은 “모든 일에 앞서 마음이 청정해야 한다. 마음자리를 바로 찾기 위해 매순간 정진해달라.

이번 안거 기간 동안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 법을 꼭 찾길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결제사를 통해 “상월 원각 조사의 진속 불이 정신으로 자리한 신도안거는 이제 사상 초유의 수행문화로 자리했다”며 “100회 안거와 상월 원각 조사 탄신 10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대계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재식에는 한달 수도 동참자외에도 3일 수도, 1주일 수도로 나눠 단기간에 들어가는 재가자들이 많았다.  
 각자 업과 수행을 병행할 수 있게 변화한 안거문화였다.  
 안산에서 온 김명수(47) 씨는 “안거 기간 모두 있지는 못하지만 매년 짧게나마 동참하려고 오고 있다”며 “안거를 하며 많은 절 일도 해볼 수 있고, 수행을 통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새벽 국광봉을 중심으로 장엄하게 늘어선 봉우리 가운데 연화봉 아래로 펼쳐진 연꽃잎을 연상시킨다 하여 연화지라 불리는 구인사. 관음정진 기도를 올리는 불제자들의 모습은 추운 겨울에 눈꽃대신 흰 연꽃이 가득한 연꽃이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관음정진 기도를 올리는 불제자들의 모습은 추운 겨울에 눈꽃대신 흰 환희심이 가득한 연꽃이었다

**안거와 천태종 신도안거**  
 안거(安거)는 음력 4월 보름 다음날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안거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이른다. 안거는 산스크리트어의 ‘바르샤’를 번역한 말인데, 우기(雨期)를 뜻하며 하행(夏行)·하경(夏經)·하단(夏斷)·하좌(夏坐)·좌하(座夏)·백하(白夏)라고도 한다.  
 원래 인도에서는 우기인 몬순기에 3개월 동안 비가 많이 오는데, 이때 처지는 불교 교단의 특수한 연중행사를 안거라 했다.  
 즉 이 시기에는 바깥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나아

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초목과 벌레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가을에 아예 외출을 삼가고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힘쓴 데서 비롯된 것이다. 동안거는 한국·중국·일본 등 북방불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안거 첫날은 안거의 제도를 맺는다는 뜻에서 결제(結制)라고 하고 푸는 것을 해제(解制)라고 하였다. 또한 안거 중에 죄를 짓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파하(破夏)라고 한다.  
 안거를 마친 뒤에는 안거중에 죄를 저지른 일이 없었는가를 서로 묻고 답하는 자자(自恣)를 벌였는데, 이 날을 특별히 자자일(自恣日)이라고 한다.  
 천태종 신도 안거의 전통은 사부대중 모두의 수행정진과 실

천행을 강조하는 천태종 종장조 상월 원각 조사의 새불교운동 정신에서 비롯됐다.  
 상월 원각 조사는 천태종 개산과 함께 종래 출가자에게만 실시된 안거를 신도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했다. 천태종은 매년 여름과 겨울 각 한 달씩 2차례 신도안거를 시행하는데 평시에는 각 지역사찰 월 정기법회 이후 3일에서 5일간 철야정진 관음기도가 실시된다.  
 천태종 스님들은 재가자 안거를 지도하며 함께 수행하며 신도 동안거가 끝난 뒤 2개월 동안 승려안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지역사찰 주지 소임과 종단 소임 등을 멈추고 모두 안거에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에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정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분 \*오심,고관절,당뇨,전립선 \*생리통,변비,냉증,산후조리(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예영 \*월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조합사극건강메트,오심간조기,오주배계등 차매점다양)

**불자종합쇼핑몰 BuljaMall**  
 불교용품, 사찰홍보용품 판촉품, 기념품, 답례품 인쇄물전문 (봉투, 전단지, 초대장 등)  
 www.buljamall.com  
 문의전화 070-7257-0408

1 석가모니불(복불)	2 집대후목(천주)	3 멀티드라이버펜	4 낚소 3단 실버
5 연꽃봉(보라)	6 벽조목방풍대	7 마드커버 세트	8 세면용 양모타올